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자유형 200·400·1500m
금메달에 도전하는 박태환

경영종목 대표팀 15명 영국으로

박태환 첫 올림픽 2연패 도전
최규용·최혜라 결승진출 노려
여수출신 정다래 성적도 주목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경영종목 대표팀이 18일 런던으로 떠났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경영 종목에 박태환(SK텔레콤)과 최규용(한국체대), 최혜라(전북체육회)와 정다래(수원시청·여수출신) 등 선수 15명(남자 6명·여자 9명)이 출전한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런던행 비행기에는 박태환을 제외한 선수 14명이 올라왔다. 현재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따로 마무리 훈련을 하는 박태환은 21일 런던으로 들어간다.

경영 대표팀은 런던 도착 후 이틀간 올림픽 선수촌에서 목다기 현지 브루넬대학에 마련된 대한체육회 훈련캠프가 20일 문을 열면 그곳으로 옮겨 대회 준비를 이어간다. 26일 부터는 다시 선수촌에서 머물 예정이다.

한국수영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경영 종목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40년 만인 2004년 아테네 대회 때 남유선이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처음으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을 만큼 세계수영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사가 새로 쓰였다.

한국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박태환 말고도 결승에 한 명, 16명이 경쟁하는 준결승에 한 명을 더 올려놓는 것이 목표다.

여자 접영 200m와 개인혼영 200m에 나서는 최혜라(전북체육회), 지난해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영 200m 결승 진출자인 최규용(한국체대)이 결승 진출을 노리는 기대주다.

최혜라는 지난해 말 쇼트코스(25m)에서 치르는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시리즈 6개 대회에 참가해 혼자 금메달 7개·은메달 2개·동메달 4개를 따며 경험과 자신감을 쌓았다.

최규용은 한국 선수로는 역대 네 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무대를 밟은 지난해 상하이 대회 남자 평영 200m에서 2분11초 17의 한국 신기록으로 7위에 올라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안종택 수영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았다"면서 "시차 적응, 컨디션 조절 등을 잘해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 경영대표팀 명단 및 출전 종목

▲남자 = 박태환(23·SK텔레콤/자유형 200·400·1500m) 최규용(22·한국체대/평영 200m) 장규철(20·강원도청/접영 100m) 정원용(20·경남체육회/개인혼영 400m) 박선관(21·한국체대/배영 100m) 박형주(17·경기도/배영 200m)

▲여자 = 최혜라(21·전북체육회/접영 200m·개인혼영 200m) 정다래(21·수원시청/평영 200m) 백수연(21·강원도청/평영 200m) 김혜진(18·온양여고/평영 100m) 김서영(18·경기체고/개인혼영 400m) 함찬미(18·북원여고/배영 200m) 김가을(15·경북체고/자유형 400m) 백일주(27·전북체육회/자유형 200m) 한나경(19·대구체육회/자유형 800m)

연합뉴스

‘수영 코리아’ 런던서 金물살 일으킨다



지난 4월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4회 동아수영대회 여자 평영 100m에서 역경하는 정다래. 정다래는 평영 200m에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민 68% “한국 10위 이내 성적 올릴 것”

갤럽 전국 1500명 올림픽 예상성적 설문조사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 시청할 종목은 축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조별리그 한국과 카메룬의 경기에서 헤딩을 시도하는 박주영.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대표팀이 런던올림픽에서 10위 이내의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4~29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표팀의 2012 런던올림픽 예상 성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8.1%가 '10위 내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80.0%에서 11.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런던올림픽에서 10위 진입이 불가능하다

는 답변은 17.3%, 모른다는 답변은 14.5%에 각각 머물렀다.

10위 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응답자 1022명에게 예상 순위를 물어본 결과 평균 성적은 7위로 조사됐다. 국가대표팀은 베이징올림픽에서도 7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시청할 종목으로는 무려 61.1%의 지지를 받은 축구가 첫 손에 꼽혔다.

박태환의 올림픽 2연패 도전으로 주목받는 수영이 37.7%, '영원한 효자 종목'인 양궁이 16.7%로 뒤를 이었다.

꼭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는 종목도 수영(45.9%), 축구(35.7%), 양궁(28.8%)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45.6%, '지금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40.7%로 비슷하게 나왔다.

런던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많이 있다'가 17.5%, '어느 정도 있다'가 41.5%, '별로 없다'가 34.0%, '전혀 없다'가 7.0%로 조사됐다.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59.0%에 이르지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 67.5%, 2008년 베이징올림픽 63.7%에 비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연합뉴스

“런던올림픽 주경기장 F1 트랙 활용”

영국 BBC방송 보도

2012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트랙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런던자산개발회사(LLDC)는 올림픽 이후 주경기장의 활용 계획을 놓고 F1 트랙 변경안을 포함한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LLDC는 런던올림픽 경기장과 부속 시설물의 장기 운용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LLDC에 따르면 F1 외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클럽인 웨스트햄과 레이튼 오리엔트, UCFB 대학이 올림픽 주경기장을 임차하기 위한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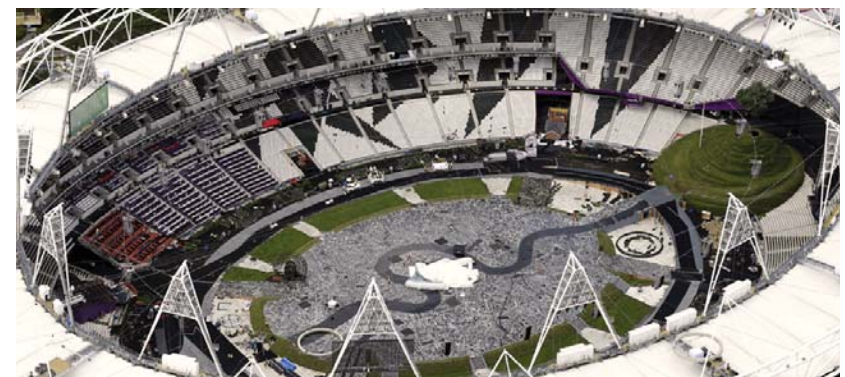
당초 웨스트햄이 주경기장을 4억 8600만파운드(약 8600억원)에 임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법적 문제에 휘말려 계약이 무산됐다.

F1 운영을 맡는 F1 매니지먼트(FOM)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은 “우리는 올림픽 주경기장 입찰에 참여한 ITS라는 회사와 제휴하고 있다”며 “직접 응찰한 것은 아니지만 ITS가 주경기장의 F1 그랑프리 트랙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F1 측은 주경기장 입찰와는 별도로 런던 시내 버킹엄궁,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빅벤, 트라팔가 광장으로 이어지는 5.15km 구간에서 F1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만 석 규모의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나면 6만 석 규모로 축소된다.

연합뉴스



■ 주목받는 세계기록

올림픽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과 박수갈채를 받는 성취는 세계기록 수립이다.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보다 지구촌의 시선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기록이 경신되면 한계 극복의 메시지는 더 강력해진다.

특히 인간의 원초적 활동과 관련된 ‘맨몸 종목’의 기록 수립은 사람의 몸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바로 느끼게 하는 까닭에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남자 육상 단거리에서 자기가 놓은 한계에 도전한다.

100m 9초 58·역도 472kg 누가 켈까?

볼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100m 세계기록인 9초58(평균 초속 10.44m)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200m에서도 같은 대회에서 자기가 수립한 19초19(평균 초속 10.42m)의 벽에 도전한다.

신체조건이 독보적인 볼트는 컨디션만 완벽하다면 100m에서 9초40, 200m에서 18초 플랫까지 찍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가장 빨리 헤엄치는 인간’은 브라질에 사는 세사르 시엘류 필류다. 필류는 2009년 상파울루에서 열린 자국 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50m에서 20초91(평균 초속 2.39m)로 터치패드를 찍어 세계기

록을 갈아치웠다. 그는 같은 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100m에서 46초91(평균 초속 2.13m)로 골인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수영은 200m까지만 가더라도 평균 초속이 2m 아래로 떨어진다.

파울 비터만(독일)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200m를 1분42초에 주파해 세계기록을 세웠으나 평균 초속은 1.96m였다.

올해 물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낸 사람으로는 50m나 100m의 강자인 콜린 존스, 앤서니 어빈(이상 미국), 제임스 마그누센, 제임스 로버츠(이상 호주), 야니 아벨(프랑스) 등이 꼽힌다.

지구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중동에 살면서 ‘인간 거장기’로 불린 후세인 레자자데(이란)였다.

레자자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합계 472kg을 들어 올렸다. 이 세계기록은 12년이 지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세운 용상 세계기록 263kg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인상 세계기록은 그의 제자인 살리미 베다드(이란)가 작년 프랑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14kg을 들면서 갈아치웠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베다드, 사자드 할라바(이란), 전상균(조폐공사) 등이 가장 힘센 사람으로 기록되기 위해 육중한 덩치를 단련하고 있다.

연합뉴스